

미혼 직장여성의 네트워크거주 실태분석

A Study on the Network Residence of Single Career Women in Korea

최정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부교수(제1저자)
Choi Jungmin Prof.,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Primary Author)
(jmchoi@konkuk.ac.kr)

박영미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Park Youngmi M. S., of Housing Environment,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
(zeromi3@naver.com)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선행연구 고찰 및 네트워크거주 개념들

1. 국내 선행연구 고찰
2. 네트워크거주의 개념들

III. 미혼 직장여성의 네트워크거주 설문분석

1. 응답자 특성 및 거주현황
2. 주거환경 실태
3. 가족인식범위와 교류현황
4. 소결: 네트워크거주 대상자 특성 비교

IV. 결론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형태 중 1인 가구는 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13%였으나 2005년에는 20%, 2010년에는 24%에 달해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나 홀로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전에는 1가족이 1가구를 구성하여 한 집에 모여 살고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분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과 각자의 생활을 위해 공간적으로 떨어져 분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분거가족(分居家族)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여 비교적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출타가 장기적이고 빈번한 가족형태로 비동거가족이라고도 한다. 분거가족과 유사한 용어로, 구미에는 분산자(splitters), 이중 둥지자(double nesters), 별거(living apart together: LAT), 확대가족(extended family) 등이 있고, 일본에는 분산거주(分散居住), 네트워크거주(ネットワーク居住)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공간적으로 분산하고 있는 가족과 다양하게 전개되는 거주 스타일을 묶어 '네트워크거주'라는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거주란, 교육이나 취업 등으로 개개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공간상 따로 분가하여 거주하지만, 가족 유대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물리적·정신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통계에서 보여주듯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분거가구 중의 하나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본가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지원 및 주거비 부담 현황 등은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택통계나 관련 조사 등에서는 주로 "1가구 = 1주택"으로 근접해 있는데, 이것은 분거가족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주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양한 가족들의 출현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사회적 여건 속에서 각자가 선택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족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비혈연거주에 대해 주택통계 등에서는 아직도 이들 가구의 실태나 주거서비스의 대응관계, 주택보급률 산정 시 가구 편입 문제 등으로 미래 대응형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선행연구¹⁾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울지역 기숙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트워크거주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상에서 가족 구성원의 상호부조 및 교류관계 정도, 가족의 인식범위 및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 대상자를 미혼 직장여성으로 바꾸어, 이들의 네트워크거주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미혼 직장여성은 학업을 마치고 막 취직을 한 사회초년생에서부터 결혼 적령기 또는 적령기가 지난 여성, 고소득자이면서 독신생활을 하는 골드미스 등 다양하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1인 가구의 가구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연령의 미혼을 또한 29.2%로 2005년에 비해 약 8%나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과 같이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차 증가하는 미혼 직장인 1인 가구는 대표적인 분거가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1) 박영미·최정민, 2011.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네트워크 거주 실태분석". 국토연구 제71권, pp149-169.

중 여성은 사회 참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거주를 실현하는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미혼 직장여성은 소비 및 마케팅 분야에 있어 남성보다 세심하며 안정적이고, 소비력이 더 뛰어나며 주택을 선택하거나 거주패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남성에 비해 향후 결혼·육아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생활 패턴에 있어 본가(거점주택)와의 교류나 분거 위치, 가족의식 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의 교류나 상호부조 관계가 남성보다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네트워크거주상의 교류 및 상호부조 관계, ② 가족의 인식범위, ③ 주거비 부담 현황 등 네트워크거주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주거비 부담률은 주거복지와 연계되므로 주택 정책적 의의가 크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문헌고찰에서는 분거가족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분거가족 중에서 본가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미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방법은 온라인 리서치 전문사이트 ‘리서치 유니버시티’²⁾를 통해 실시하였는데, 통계 모집단인 전국의 미혼 직장여성의 오프라인 조사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온라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는 피설문자를 제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 초기 메뉴에 본 연구 분석에 부합하는 자만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여과장치를 두어 검증하였다. 설문은 2011년 7월 5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었으며, 전국

에 거주하는 킬리언패널 등록자 가운데 만 20~49세의 미혼 직장인으로 본가에서 독립하여 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1천 명의 유효표본을 획득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① 피설문자 자신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주거특성, 본가의 주거특성, ② 분거지의 거주 환경 및 본가와의 관계, ③ 집과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주거 공간요구도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은 S-PLUS 6.1의 S통계언어에 의한 코딩으로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및 네트워크거주 개념들

1. 국내 선행연구 고찰

정옥분(2006)에 따르면 분거가족은 가족원들이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여 비교적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출타가 장기적이고 빈번한 가족형태를 의미하며, 비동거가족(commuter familie)이라고도 한다. 분거기간에 따라 정의되는 용어도 다양한데, 엄명용(2002)은 직장 등의 문제로 부부 중 한쪽이 나머지 가족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말부부’ 또는 ‘월말부부’로 칭하고, 장기적으로 자녀와 아내는 해외로 보내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위해 국내에 남아 생활하는 가족은 ‘분거가족’ 또는 ‘기러기가족’으로 지칭한다. 또한 문숙재 외(2003)는 맞벌이 주말부부를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는 부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가지는 것이라 하였고, 더불어 분리거주 기간도 맞벌이 주말부부의 개념 정의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연구자에 따라 1주일에서 최소한 2~4일 떨어져 지내는 부부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관련 용어로는 통근가족, 별거가족, 맞벌

2) SK마케팅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리서치 유니버시티’는 학계지원서비스로, 온라인 리서치 전문사이트 ‘킬리언패널’에 가입한 회원을 통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 설문 진행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리서치 유니버시티’에서는 40만 명 회원 중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ru.tillionpanel.com).

표 1_ 연구자별 분거가족의 정의 및 관련용어

저자	분거가족의 정의		관련 용어
정옥분(2005)	가족원들이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여 비교적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성원들의 출타가 장기적이고 빈번한 가족형태를 의미		비동거가족 (commuter families)
엄명용(2002)	주말부부, 월말부부	직장 등의 문제로 부부 중 한 쪽이 나머지 가족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경우	주말부부, 월말부부, 기러기가족
	분거가족, 기러기가족	장기적으로 자녀와 아내는 해외로 보내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위해 국내에 남아 생활하는 가족	
최양숙(2006)	맞벌이 주말가족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근무지에 각각 주거를 두고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을 떨어져서 생활하는 부부로서 분거생활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부부	통근결혼, 장거리 결혼
	분리거주(LAT)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 커플	
문숙재 외(2003)	맞벌이 주말부부	별개의 거주지 이외에 분리거주 기간도 개념에 포함되는데, 연구자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한 2일에서 3일 떨어져 지내는 부부로 정의	통근가족, 별거가족, 맞벌이 주말부부, 통근결혼
김주현(2010)	가족구성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떠한 형태로든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		기러기가족, 글로벌가족, 다국적가족, 초국적가족

이 주말부부(또는 맞벌이 주말가족) 등이 있다. 그런데 주말부부나 기러기가족 등은 분거기간 및 거주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분거가족 유형 중의 하나다. 이와 같이 분거가족이라 함은 직장이나 학업 등 가족의 개별적 이유로 그 구성원이 장기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김양희(2004)에 따르면 가족이 거주공간을 분리하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 교육, 직장의 경우다. 즉, 함께 생활하던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으로 분가하는 경우,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거나 대학생활을 위해 분가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가족원 중 일부가 이주해 분리 거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구자순(1994)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말미암아 부부들이 자발적인 별거를 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간 노동력 이동이 빈번해지고, 젊은 층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직업 성취도를 통한 자아실현이 중요시되면서 비동거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상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분거가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김양희, 2004), 1960년대에 이농현상이나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 인한 일시적 비동거가 분거가족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의 건설 붐과 독일 탄광으로의 취업 등 해외 경제활동으로 인해 장기적 분거가족이 생겨났다. 1980년대에는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행정관청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 간 노동력 이동이 빈번해짐과 함께 교통수단의 발달 및 여성 노동력의 증가로 인해 주말부부가 생겨났으며, 1990년대에는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남편이 전근을 하더라도 자녀와 아내는 살던 곳에 남겨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내와 자녀만 대도시로 이사하는 가족이 생겨났다. 2000년 이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자녀의 해외조기유학을 위해 자녀와 아내만 해외에 거주하고 남편은 국내에 거주하는 소위 ‘기러기가족’이 나타났다. 글로벌화되는 세계 경제 환경과 교통 및 통신,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부부나 가족이 2개 이상의 국가에 떨어져 지내며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연한 가족 형태인 초국적·다국적가족을 등장시

켰으며, 이 같은 분거가족의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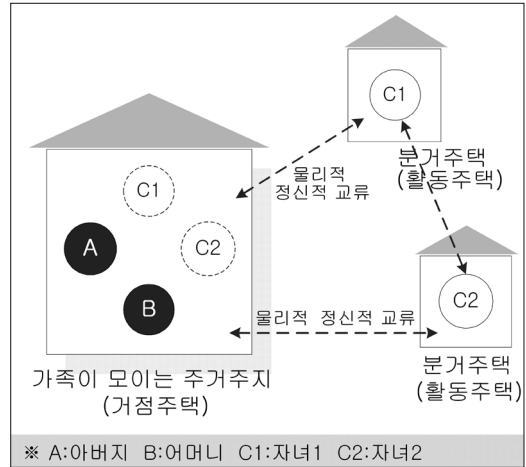
최근에는 교육 및 취업을 위해 청년 자녀만 따로 대도시로 나와 1인가구를 형성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 분거는 1990년대 이후 미혼자녀들이 단독가구를 이루어 독립하면서 증가했는데, 1990년대 초반의 전반적인 경제수준 향상과 함께 청년기 자녀들의 경제적 활동이 증대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청년기 자녀의 경제활동이 과외교습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해지고 기회가 확산되었으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 증가와 대학의 도시집중 현상이 복합되어, 교육상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또한 해외연수나 장기간 여행의 형태로 접떠나는 청년들의 숫자도 급증하였으며, 신도시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부모가 서울시내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상의 이유로 분거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고되었다(차승은, 1999).

2. 네트워크거주의 개념들

1) 네트워크거주의 이미지

본 연구에서의 네트워크거주는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네트워크거주 개념을 참고하여 접근하고 있다. 즉, 교육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공간상 따로 분리하여 거주하지만, 가족 유대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주거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1985년 도시주택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보고서에서 학술적으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하나의 확대가족이 거점주택(본가)과 활동주택(분가)을 소유하고 상호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거주

그림 1 _ 네트워크거주의 이미지(4인 가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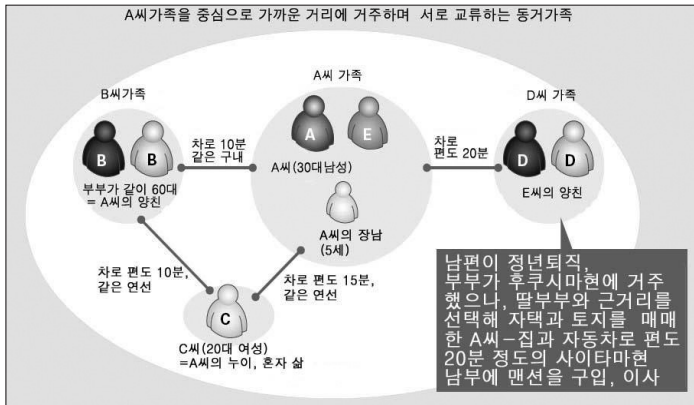
를 말하며, 가족으로서 의식을 공유하는 가족이 각자 자립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을 위해서로의 거주지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살고 있는 거주패턴으로 정의한다(山鳥哲夫 외, 1996).

네트워크거주의 이미지를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그림 1>인데, 여기서는 4인 표준가구(부모 및 자녀1, 2)의 분거에 따른 네트워크거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A, B, C1, C2가 한 가족으로 한 집에서 생활하다가(1가구=1주택), 장성하여 부모(AB)와 자녀(C1, C2)가 분가하여 각각 네트워크거주를 형성하는 것으로(1가구=3주택), 예컨대 자녀 1(여, 직장: 결혼 전 사회초년생)과 자녀 2(남, 교육: 대학생 자취)의 관계를 모식화한 것이다. AB-C1 및 AB-C2, C1-C2는 '보이지 않는 가족(invisible family)'으로서 네트워크거주를 통해 상호 부조와 교류(경제적·정신적 등) 활동이 이루어진다.

2) 보이지 않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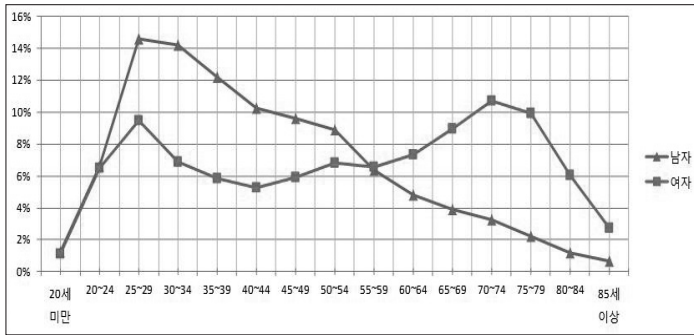
최근 일본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가족'은, <그림 2>와 같이 함께 살지는 않으나 일정 거리 내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는 가족으로, 재정

그림 2_ 보이지 않는 가족 이미지



자료: 川津のり, 2008.

그림 3_ 연령 및 성별 1인 가구의 비율 비교



자료: 통계청, 2010년 자료 재구성.

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川津のり, 2008).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녀 중 한 명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데, 출산율 저하로 자녀 수가 줄어들어 대부분 혼자서 부모를 모시게 되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편승하여 베이비붐의 자녀세대 특성상 독립적인 경향이 크며, 여성의 직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족이 확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로환경이 더 안정되었고, 이는 가족 임금의 상승을 가져왔다. 더불어 재정력, 정보력, 만족감의 범위가 확장되고, 보이지 않는 가족형 소비가 커지고 소비유형이 다양화되

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소비패턴이 존재하는데, ‘지원형 소비(support consumption)’는 서로 연결된 가족을 위한 소비로, 구매자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를 위한 물건을 사거나, 부모가 조부모를 위한 물건을 사는 것이다. ‘공유형 소비(shared consumption)’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비로, 집의 리모델링,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구 및 인테리어를 들 수 있다. ‘파생형 소비(derived consumption)’는 연결된 가족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소비로, 서로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연결된 가족이 정보를 교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매 촉진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디지털 홈가전제품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보이지 않는 가족의 소비패턴에 따른 새로운 시장이 잠재하고, 다양한 대상에 맞춘 마케팅이 필요하며, 주거

에 대한 주택 구매나 이동성 등에 관한 소비패턴 또한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1인 가구의 네트워크거주

국내의 1인 가구는 1980년대 4.8%에 불과하였으나 혼인율 감소와 초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른 미혼 1인 가구의 증가, 이혼과 별거, 사별로 인한 가구, 그리고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교육과 취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도시에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층 역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 대비 23.9%에 이르고 있다.

〈그림 3〉에서 1인 가구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46.5%)에 비해 여성의 비율(53.5%)이 높으며, 연령대를 비교하면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는 남성 1인 가구의 수가 많은 것에 비해 60대부터는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혼인상태로 보면 남성 1인 가구는 미혼(57.7%)인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사별(45.7%)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취업 및 경제난으로 인한 남성의 초혼연령 상승과 30대의 경우 결혼 적령기가 여성에 비해 많고, 40대에서는 기러기아빠가 되거나 이혼이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남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자녀들의 부모 부양역할 저하로 인해 여성의 1인 가구가 남성보다 많아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최근 혈연·지연의 전통적 연결고리 없이 타인과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무연사회(無緣社會)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살아가는 고령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이슈화되었다. 또한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도쿄 인근에서는 고독사한 사람의 3분의 1이 비교적 젊은 50~64세 여성층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일본의 미혼자는 '고독사 예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³⁾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1인 가구의 증가가 더해지면서 무연사회와 고독사라는 형태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일본과 인구구조 진행상황이 매우 유사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 1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일본과 같은 무연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 국내 통계조사 통계청 인구동태⁴⁾에 따르면, 2010년 남성의 초혼연령은 31.8세로 1990년에 비해 3.9세나 늦춰졌으며, 여성 또한 같은 기간 28.9세로 4.1세 올라갔다. 미혼 비율 또한

25~29세 여성은 67.8%로 늘었으며, 30~34세의 남성의 미혼 비율은 49.8%로 급증했다.

비자발적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발적 1인 가구라도 심리적인 고립감은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확대, 동호회 및 사교모임 증가, 애묘족(애완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혈연가족 개념과 유대가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문제, 자살률 상승, 고독사 등의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분거상황을 파악하면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의 가족과의 관계를 주 생활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네트워크거주에 대한 접근은 이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 하겠다.

III. 미혼 직장여성의 네트워크거주 설문분석

1. 응답자 특성 및 거주현황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 2〉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1천 명의 연령은 20대가 51%, 30대가 48.1%, 40대가 0.9%다. 특히 20대 후반의 여성이 많은데, 28~29세가 16.9%, 26~27세 15.5%, 24~25세가 14.7%를 보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6.5%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은 19.3%로 대졸 이상자를 합하면 75.8%다. 월 평균소득은 150~2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였고(28.8%), 다음으로 100~150만 원(25.6%), 200~250만 원(17.8%)의 순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신)의 2011년 2분기의 1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월소득 평균은 약 186만 원

3) 김동진. 2010. "장수국가 日 '무연사회'의 그림자". 세계일보, 8월 12일자.

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www.kostat.go.kr).

(1,857,631원)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본 논문 설문 응답자의 약 55%는 중하위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52명으로(5.2%) 직업과 관련이 깊다. 샘플 구성과 대비하여 가중평균으로 이를 집계해보면, 사무직은 전체 인원 중 3.4%, 서비스직은 4.6%, 전문직은 10.1%, 자영업은 16.2%의 인원이 연 5천만 원의 소득에 가깝고 주로 자영업과 전문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현거주지와 본가(출신지)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현거주지 인근의 모도시나 인접 행정지역으로부터 분리한 사람이 많다.

2) 응답자의 거주지 및 본가 거주현황

현거주지의 주거 유형으로 원룸(33.3%), 다가구·다세대(31.5%), 아파트(18.1%), 오피스텔(9.2%) 순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 원룸과 다가구·다세대를 합치면 전체의 약 65%에 해당한다. 반면 본가의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44.4%), 단독주택(33.6%), 다가구(7%) 순이다.

현거주지의 주택 규모는 주거유형과 관련이 크므로, 30~50㎡ 미만(9~15평대)이 압도적으로 많고, 30㎡ 미만(9평)과 50~83㎡(15~25평)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본가의 주택은 99~132㎡(30평대)가 39.8%로 가장 많고, 66~98㎡(20평대)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주거 유형별로 보면, 원룸은 49.5㎡(15평) 미만(52.2%)과 29.7㎡(9평) 미만(42.9%)의 경우로 나뉘고, 오피스텔은 절반이 29.7~49.5㎡며, 50~83㎡도 상당량 되었다. 이에 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는 29.7~49.5㎡(53.6%)와 50~83㎡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상당수의 설문 대상자는 규모 49.5㎡ 미만의 원룸과 다가구·다세대 또는 오

표 2_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N=1,000)

분류		내용	
인적 사항	연령 범주	20~29세(51%), 30~39세(48.1%), 40~49세(0.9%)	
	직업	사무직(58%), 전문직(20.8%), 서비스직(10.8%), 자영업(3.7%), 임시직(2.1%), 생산직(1.9%), 기타(1%)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0.3%), 고등학교 졸업(14.9%), 전문대 졸업(19.3%), 대학 졸업(56.5%), 대학원 이상(9%)	
	월평균 소득(만 원)	100 미만(3.7%), 100~150 미만(25.6%), 150~200 미만(28.8%), 200~250 미만(17.8%), 250~300 미만(8.9%), 300~350 미만(6.8%), 350~400 미만(3.2%), 400 이상(5.2%)	
주거 현황	본가 (거점주택)	주거유형	아파트(44.4%), 일반단독주택(33.6%), 다가구 단독주택(7%), 다세대주택(5.6%), 연립주택(5.5%), 영업 겸용 단독주택(2.4%),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0.7%), 기타(0.8%)
		현거주 (활동주택)	20평(66㎡) 미만(11.1%), 20평(66~99㎡) 미만대(27.5%), 30평(99~132㎡) 미만대(39.8%), 40평(132~165㎡) 미만대(10.4%), 50평대(165㎡) 이상(11.2%)
		소유 형태	자가(78.3%), 전세(12.9%), 월세·보증부월세(8%), 기타(0.8%)
		가족 구성원	부모(26.5%), 부모+남자형제(21%), 부모+여자형제(10%), 부모+남자형제+여자형제(7.8%), 모(4.3%), 모+남자형제(3.5%), 부(2.8%), 조모+부모+남자형제(2.2%), 모+여자형제(2.1%), 조모+부모(1.9%)
	현거주 (활동주택)	현거주 동거인	혼자(61.5%), 형제·자매(21%), 친구·직장동료 등(9.2%), 연인(5.6%), 친척(1.7%), 기타(1%)
		주거 유형	원룸(33.3%), 다가구·다세대주택(31.5%), 아파트(18.1%), 오피스텔(9.2%), 기숙사(2.9%), 도시형 생활주택(2.2%), 하숙집(0.5%), 기타(2.3%)
		주택 규모	9평(30㎡) 미만(22.7%), 9~15평(30~50㎡) 미만(45.8%), 15~25평(50~83㎡) 미만(23.5%), 25평(83㎡) 이상(8%)
		소유 형태	월세·보증부월세(46.2%), 전세(38%), 자가(10.8%), 무상(친지 등)·기숙사(3.4%), 기타(1.6%)

주: 각 항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항목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임.

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현거주지 소유 형태는 월세나 보증부월세가 가장 많고(46.2%), 다음으로 전세(38%), 자가(10.8%)의 순이다. 자기 집을 가진 108명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35.4%), 도시형 생활주택(22.7%), 오피스텔(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근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분양 열기에 편승하여 이들 주택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가의 주택 소유 형태는 대부분이 자가로, 78.3%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현거주지의 주거형태로 '기타 항목'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보면, 기숙사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 관사나 사택, 심지어 극소수이긴 하지만 고시원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2. 주거환경 실태

1) 분거주택의 위치 및 현황

(1) 분거주택 위치

〈표 3〉의 a와 같이 분거주택의 분포를 보면, 다가구·다세대 지역(60.8%), 역세권 지역(59%), 직장 인접 지역(58.2%)의 순이었다. 복수응답이므로 설문응답자

의 항목 선택 수를 보면 2개를 고른 사람이 48.3%, 1개는 30.4%, 3개는 19.2%였으며, 심지어 모든 항목을 선택한 사람도 21명(2.1%)이었다. 복수 항목의 조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다세대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비슷한 비율로 직장과의 근접성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직장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에 기거하는 인구가 많다.

(2) 현거주지(분거주택)를 선택한 이유

〈표 3〉의 b와 같이 분거주택 선택 이유는 가격(70.1%), 교통 편리(67.5%), 직장 인접(57.7%), 주택 실내구조(33.7%)의 순으로, 미혼 직장여성이 본가와 떨어져 분거지에서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가격이나 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미혼 직장여성은 교통이 편리한 직장 인접지역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선호한다. 그런데 교통이 편리한 곳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지방 출장이나 본가 방문이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3) 주거 선택을 위한 정보 입수 경로

〈표 3〉 c와 같이 현 주거지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

표 3_ 현 분거주택의 선택 결정과 현황

분류	내용		분류	내용	
a. 현 분거지 위치	다가구·다세대 지역	608(60.8%)	c. 주거지 관련 정보의 입수경로	부동산 중개소	520(52%)
	역세권(도보 10분 이내)	59(59%)		가족·지인	262(26.2%)
	다니는 직장과 근접	582(58.2%)		인터넷	128(12.8%)
	친인척집 근접	114(11.4%)		전단지·광고	480(4.8%)
b. 현 분거주택 선택 이유	가격 적당	701(70.1%)	d. 방법시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370(3.7%)
	교통 편리	675(67.5%)		불만족	208(20.8%)
	직장 인접	577(57.7%)		보통	435(43.5%)
	주택 실내구조	337(33.7%)		만족	290(29%)
	보안·방법	193(19.3%)		매우 만족	30(3%)
	주변 친인척 거주	130(13%)			

주: 각 항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항목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임.

과, 부동산 중개소(52%), 가족·지인(26.2%), 인터넷(4.8%), 전단지·광고(4.2%)의 순이었다.

(4) 분거주택의 방법시설 만족도

〈표 3〉 d의 현거주 분거주택의 방법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보통(44%), 만족(29%), 불만족(21%)의 순이었다. 현재의 방법시설에 만족하는 비율은 불과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독거 여성의 경우, 특히 야간 늦은 시간대의 주택 출입 및 체재 시에 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분거주택의 공간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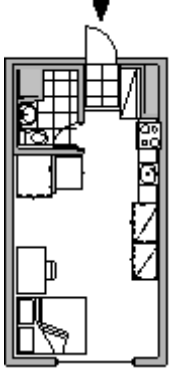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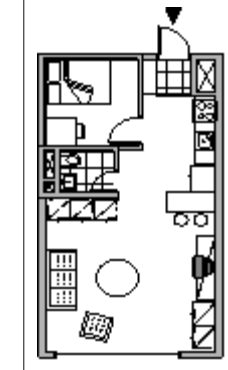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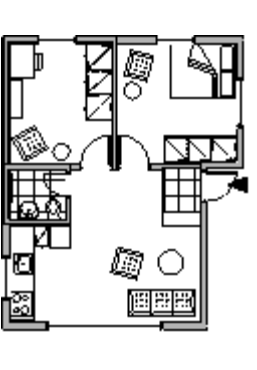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현재 거주 주택의 공간배치를 알아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은 1인 가구가 통상 거주하

는 방의 배치로 설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식화한 것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그림 4〉 d의 2LDK(38.8%)로, 다가구·연립주택/소형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다. 그 다음으로 원룸형(35.4%)의 공간 배치가 많았으며, 가장 적은 유형은 두 번째 실내에서 가변형 파티션 등으로 구획할 수 있는 ‘가변형 원룸’으로, 7%에 불과하였다.

3) 분거가족 월 지출비 현황

설문응답자의 월 지출비용⁵⁾을 보면 〈그림 5〉와 같다. 설문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을 산술평균⁶⁾하면 약 210만 원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출비용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집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에 17.2%(36만 원),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40만 원), 교통·통신비(21만 원), 쇼핑 등 생활

그림 4_ 현 분거주택의 공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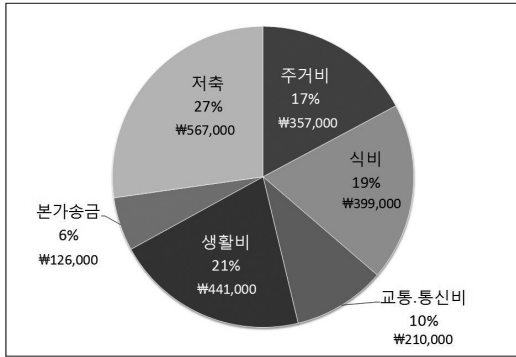
	a. 원룸 (욕실만 분리)	b. 가변형 원룸 [칸막이벽(파티션) 등으로 침실 분리]	c. 1LDK (독립된 하나의 침실공간)	d. 2LDK (2개 이상의 독립된 침실공간)
유형				
응답 수(%)	354(35.4%)	70(7.0%)	188(18.8%)	388(38.8%)

주: L-거실, DK-식당과 부엌.

5)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응답자에게 월소득을 직접 설문하는 형식이 아닌 보기를 카테고리(12구간)로 제시하고 여기서 고르도록 하였음. 그 이유는 응답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소득을 직접 기입하도록 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정 답변으로 인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6) 월소득은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최대오차는 25만 원임. 예컨대 150~200만 원의 구간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소득을 175만 원으로 하였음.

그림 5_ 월 지출비 현황



비(44만 원), 본가에 송금하는 금액 5.8%(12만 원), 저축액 27.2%(57만 원)이다. 지출비 구성 특징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금액의 평균은 27.2%이지만 여타항목과 비교할 때 구성비율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즉, 자신의 소득액 대비 10%를 저축하는 사람은 32.8%이며, 20%를 저축하는 사람은 16.1%, 30%는 13.4%, 40%는 12.6%, 50%는 14.2%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비율, 다시 말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을 초과해서 저축하는 사람은 10.1%다.

지출비 구성비율과 본인 월수입의 관계를 상관 분석하였다. 지출비용 항목 중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저축금액(P-cor: 0.13, pv: 0.00)⁷⁾이 강했는데, 월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출비용 중에서 저축액 비율이 높았다. 본가 송금액 비율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그 관계는 약했다.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주거비(P-cor: -0.15, pv: 0.00)와 식비(P-cor: -0.14, pv: 0.00)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거비와 식비의 지출비율이 높고, 고소득자에게는 그 비율이 낮았다. 한편 생활비와 교통·통신 항목은 소득금액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 유

표 4_RIR 분류 및 응답자 특성과의 관계 (각 수준별 점유비율 %)

구분	구분 (RIR %)	저부담률 (15% 미만)	중부담률 (10~25%)	고부담률 (25% 이상)
	빈도 (비율%)	754 (75.4%)	169 (16.9%)	77 (7.7%)
연령	20대 초반	9.2	15.4	26.0
	20대 후반	39.1	44.4	32.5
	30대 초반	34.4	25.4	26.0
	30대 후반	16.7	13.0	14.3
	40대	0.7	1.8	1.3
지역	서울	45.2	42.6	45.5
	경기, 인천	23.7	27.8	22.1
	충청	8.8	8.3	10.4
	전라	6.4	4.7	2.6
	경상	13.8	13.6	16.9
주거 유형	강원, 제주	2.1	3.0	2.6
	원룸주택	30.0	45.0	40.3
	다가구·다세대	31.4	34.9	24.7
주택 규모	아파트	20.6	8.9	14.3
	기타	18.0	11.2	20.8
	30m ² 미만	18.8	32.0	40.3
	30~50m ² 미만	46.3	45.6	41.6
학력	50~83m ² 미만	25.9	17.2	14.3
	83m ² 이상	9.0	5.3	3.9
	고졸 이하	11.7	24.3	29.9
	전문대졸	18.8	20.7	20.8
월 소득	대출	59.2	49.7	45.5
	대학원졸	10.3	5.3	3.9
	~150만 원 미만	16.7	59.8	85.7
	150~200만 원	30.4	29.6	11.7
200~300만 원	33.2	8.9	2.6	
300만 원 이상	19.8	1.8	-	

주: 음영된 부분은 상대적 점유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냄.

의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신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을 자세히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4>는 OECD에서 권고하는 RIR 상한선인 20%를 기준으로 15% 미만

7) P-cor는 적률상관계수 값, pv는 유의수준임.

표 5_ 전세 및 월세 임차 조건 및 조달 방법

a	전세	전세 조건	전세금액/계약기간					
		조달 방법	본인 조달	가족·친지 보조	제도금융대출(은행)	제도금융 외 대출(사채)	기타	합계
			평균 6,800만 원/평균 24.8개월					
			평균 54.5%	평균 35.8%	평균 7.6%	평균 0.3%	평균 1.8%	100%
b	월세	월세 조건	월세금액/계약기간					
		조달 방법	보증금	본인 조달	가족·친지 보조	제도금융대출(은행)	제도금융 외 대출(사채)	기타
			평균 2,100만 원	평균 32만 원/평균 24개월				
			평균 77.8%	평균 15.8%	평균 2.1%	평균 0.4%	평균 3.8%	100%

을 ‘저부담률’, 15~25% 미만을 ‘중부담률’, 그리고 25% 이상을 ‘고부담률’로 분류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의 인구 및 주거특성과 비교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⁸⁾ 표의 각 셀은 행의 각 변수 수준에서 열의 RIR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연령에서 저부담률은 30대 초반이, 중부담률은 20대 후반이, 고부담률은 20대 초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 비율을 나타낸다.

〈표 4〉를 간단히 정리하면, RIR이 낮은 저부담률에 해당하는 특성으로는 “30대 초반, 전라도, 아파트, 큰 규모의 주택, 대출 이상의 고학력 및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담률의 경우는 “20대 후반, 수도권, 원룸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월소득 100~150만 원”인 미혼 직장여성이 많다. 반면 고부담률의 경우는 “20대 초반, 충청·경상도, 기타 주택, 소규모, 저학력, 저소득”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RIR 부담률이 큰 25% 이상의 고부담률 계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주로 저학력의 20대 초중반으로, 적은 수입으로 고시원 등 소규모 기타 주택에 기거할 수밖에 없는 직장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대응이 시급

함을 알 수 있다.

4) 주거비 부담현황

응답자의 현거주지 임차현황과 조달방법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임차는 전세의 경우와 월세(반전세)로 나누어 계약조건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다. 전세 입주자는 1천 명의 응답자 중 380명이고, 월세(보증부월세)자는 462명이다.

(1) 전세의 경우(〈표 5〉 a 참조)

먼저 전세금액의 분포를 보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500만 원이며, 평균 6,800만 원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5,800만 원). 전세자 특성으로, 전세가 2억 이상의 거주자는 서울, 수도권의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거주자가 많았다. 반면 5천만 원 이하 거주자는 원룸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전세계약 기간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24개월이 가장 많은 275명으로, 378명 중 72.7%이며, 다음으로 12개월은 42명으로 11.1%,

8) 〈표 4〉와는 별도로 RIR 분포를 더 세분화하여보면, RIR이 0~10% 미만(63.7%), ~15% 미만(11.7%), ~20% 미만(8.8%), ~25% 미만(8.1%), ~30% 미만(1.7%), ~35% 미만(2.7%), ~40% 미만(0.2%), 40% 이상(3.1%)으로 나타남.

그다음으로 36개월은 10명으로 2.6%를 나타냈다. 가장 길게는 7년간 거주하는 자도 1명 있었다. 전세금 조달방법을 알아보았을 때, 본인에 의한 조달이 54.5%,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의 도움이 35.8%로 나타났다. 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은 7.6%에 불과하였다.

(2) 월세의 경우(〈표 5〉 b 참조)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입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금은 평균 2,100만 원이며, 5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약 95%에 해당한다. 보증금의 중앙치는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전체 월세 거주자 462명 중 180명(39%)이 해당하며, 1천만 원 미만은 97명(21%),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은 66명(14.3%)이었다. 월세금액은 평균 32만 원(최소 2만 원, 최대 200만 원, 표준편차 16.5만 원)이며, 중앙치는 30만 원이다. 따라서 월세 임차가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30만 원이다. 월세 계약기간은 24개월이 가장 많은 44.1%를 보였고, 다음으로 12개월이 32.9%를 나타내어 1년과 2년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이룬다. 앞서 전세금과 마찬가지로 월세금의 조달방법을 보면, 본인이 직접 조달하는 경우가 77.8%,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의 보조가 15.8%였다. 은행이나 사채 등의 방법은 6.4%에 머물러, 월세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본인의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이 명백하다. 앞서 전세와 비교해볼 때, 일시에 많은 금액이 필요한 전세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율이 35.8%였으나, 월세의 경우 15.8%에 불과해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액 지원 비율도 7.6%에서 2.1%로 감소하여, 전세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줄어들었다. 월세를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 보조받는 사람의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소득이 낮을수록 보조율이 높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0만 원 이하는 56.7%가, 200~300만 원 이하는 87.5%가 부모나 친지로부터 월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300만 원 초과에서는 불과 12.5%만 보조를 받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원 비율에서 100%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200만 원 이하 소득자다.

5) 주거비 부담 정도에 관한 의식

(1) 주거비(전월세 및 관리비) 부담 정도

〈표 6〉 a와 같이 현주거비의 집세(전·월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설문하였다. 보통을 중간으로 했을 때 부담스럽다는 층이 46.9%(약간 부담 34.6%, 매우 부담 12.3%), 부담 없음이 27.3%(전혀 부담 없음 10.7%, 별로 부담 없음 16.6%)였으며, 중간에 해당하는 보통은 25.8%였다. 앞서 주거비 부담 정도에 대한 느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인구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부담 없다고 느끼는 그룹에 비해 부담 있다고 느끼는 그룹의 주요 특징을 보면, 연령에서는 20대가 두드러지고,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

표 6_ 주거비 부담 정도

구분	전혀 부담 없다	별로 부담 없다	보통	약간 부담	매우 부담		
a.	전세·월세	107(10.7%)	166(16.6%)	258(25.8%)	346(34.6%)	123(12.3%)	
	관리비	108(10.8%)	240(24%)	339(33.9%)	248(24.8%)	65(6.5%)	
b.	주거비 추가부담 지불의사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 이상
		520(52%)	255(25.5%)	146(14.6%)	34(3.4%)	15(1.5%)	30(3.0%)

이 낮은 15평 이하의 원룸 거주자다. 즉, 전·월세 값이 비싼 서울지역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 20대의 소규모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겠다.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보통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담된다는 비율이 31.3%, 부담 안 된다는 비율이 34.8%다. 앞서 주거비 부담 정도와 마찬가지로 관리비에 대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인구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비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그룹에 비해 부담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서울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많은 편이다. 전월세에 비해 여타의 항목에서는 큰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2) 주거비 추가부담 지불의사

〈표 6〉b에서와 같이 현재의 주거비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질적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재보다 얼마만큼의 주거비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추가부담 금액 10% 미만인 52%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추가부담에 난색을 표명하였고, 10~20%는 25.5%, 20~30%는 14.6%다. 즉 추가부담 금액이 현재의 30% 이하는 92%를 나타냈다. 추가부담 지불의사 10% 미만 그룹과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인구통계적 특성을 비교하면, 주거비 추가부담 지불의사에 적극적인 사람은 30대 초반의 서울 지역 미혼 직장여성이 많으며,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고소득층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주거비 추가부담 지불의사에 적극적인 사람은 월세 거주자에 비해 전세 거주자가 많으며, 주거비의 지출비용에 있어서도 10% 미만으로 현재 주거비에 부담을 적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주거비 추가부담 지불의사에 있어서 적극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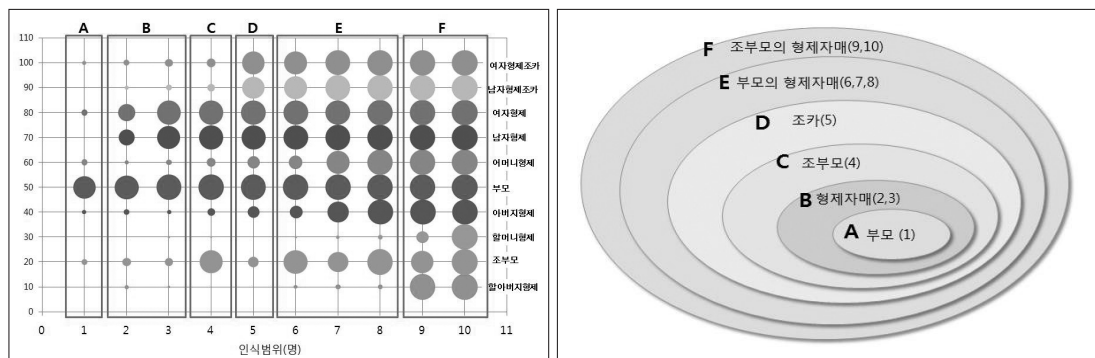
3. 가족인식범위와 교류현황

1) 가족인식범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범위를 표시하게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개략적인 인식범위의 경계는, 부모(A), A+형제자매(B), B+조부모(C), C+조카(D), D+부모의 형제자매(E), E+조부모의 형제자매(F) 순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 앞서 기숙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동일의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분거 대학생들은 D와 E 부분이 뒤바뀌어 부모의 형제자매를 먼저 인식하고(인식 응답빈도가 높음) 그 후에 조카를 인식하였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은 평균 나이가 본 연

그림 6_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



구대상인 미혼 직장여성에 비해 어리기 때문에 조카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 이 같은 설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미혼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이모, 삼촌 등 부모의 형제자매보다 자신의 형제자매의 자식인 조카를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네트워크거주의 교류현황

설문 응답자의 분거기간을 알아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5개월(약 20년)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70.8개월이다. 80개월 이내, 즉 6.5년이 전체의 63%에 이른다. 분거기간은 학력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여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거기간과 학력의 관계를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평균 분거기간은 205.7개월로 약 17년이며,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85.2개월로 약 7년이며, 전문대졸 65.2개월, 대졸 68.6개월, 대학원졸 68.4개월로 약 5.5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이 낮을수록 분거기간이 긴데, 이는 저학력자일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가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 분거 이유(〈표 7〉 a 참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직장관계(63.8%)가 두드러진 가운데,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 추구(23.6%)가 나타났다. 부모의 권유나 의사, 가족 간의 불화는 모두 5% 이하였다. 기타 자유의견을 보면, “학업 때문에 유학하고 이후 그대로 직장에 취업하였다”, “나이가 많아 혼자 살고 싶다”, “본가가 지나치게 외진 곳이다”, “연인과 동거하기 위해서”, “원거리 출퇴근이 힘들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분거이유 중에서 “자유로운 생활 추구”로 답변한 236명의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연령이 많으며, 15~25평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 이하에서 특히 많으며, 전문대졸의 경우도 제법 있으며, 월 소득 측면에서는 중저소득층자가 많았다.

(2) 교류수단(〈표 7〉 b 참조)

본가 가족들과 연락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설문결과, 전화(93.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문자메시지(4.9%)는 약간 있었고, 이메일, SNS(트위터, 미니홈피, 페이스북 등) 등은 매우 낮았다. 스마트폰 등 휴대폰의 기술적 진화로 전

표 7_ 분거 이유 및 네트워크상의 교류 정도(N=1,000)

a	분거 이유	직장관계	자유로운 생활	부모 권유	부모 이사	가족 간 불화		
		638(63.8%)	236(23.6%)	8(0.8%)	46(4.6%)	42(4.2%)		
b	교류 수단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931(93.1%)	49(4.9%)	4(0.4%)	4(0.4%)			
c	교류 빈도	하루 여러 번	하루 한 번	2~3일 한 번	일주일 한 번	월 몇 번	용건 있을 때	거의 안 함
		130(13%)	179(17.9%)	301(30.1%)	150(15%)	93(9.3%)	123(12.3%)	24(2.4%)
d	방문 빈도	일주일 1회	2~3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1년 2~3회	1년 1회	거의 안 함
		151(15.1%)	183(18.3%)	182(18.2%)	240(24%)	179(17.9%)	14(1.4%)	51(5.1%)

화라는 설문항목에 문자메시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부분 휴대폰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류수단에 대한 자유기술의견에서 “직접 찾아감”(방문)이라고 기술한 경우도 7건⁹⁾ 있었는데, 이들은 현거주지와 본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 등의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였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하루에 여러 번 본가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류빈도(〈표 7〉c 참조)

본가의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취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2~3일에 한 번(30.1%), 하루 한 번(17.9%), 일주일에 한 번(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는 2.4%였다. 교류빈도가 적은 사람의 인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월 몇 번~거의 안 한다고 답변한 사람을 추출하였는데, 이들의 규모는 전체 설문 대상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40명이다. 연령을 보면 30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충청 및 경기·인천 권역에 사는 아파트 거주자가 많다. 주택의 규모로는 9평 미만의 소형이나 25평 이상에서 양극화되어 나타났으며,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4) 방문빈도(〈표 7〉d 참조)

본가의 방문빈도는 2~3개월에 1회가 가장 많고(24%), 2~3주에 1회, 월 1회, 연 2~3회가 대략 18%를 이루었다. 반면에 거의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5.1%를 나타냈다. 본가 방문은 본가와 의 공간적 거리와 가족과의 친밀, 유대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류빈도가 낮은 사람은 방문빈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교환 등

이 제한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네트워크거주 대상자 특성 비교

상기 설문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표 8〉과 같이 본 연구 대상자와 이 연구에 앞서 진행된 민자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네트워크거주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직장여성에 있어서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성과 직주근접의 편리성 및 저렴한 주택의 가격이며, 실제 현 거주지는 역세권 내 직장인 인접한 곳의 다가구·다세대 지역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거주주택의 공간배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침실공간이 있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210만 원이며, 지출비용의 구성내역은 집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17%, 36만 원),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19%, 40만 원), 교통·통신비(10%, 21만 원), 쇼핑 등 생활비(21%, 44만 원), 본가에 송금하는 금액(6%, 12만 원), 저축액(27%, 5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비 구성비율과 월수입의 관계에 따르면, 저소득자에게 있어 기본적 지출인 주거비와 식비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소득자는 반대로 그 비율이 낮고 저축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분거 이유는 직장(64%)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 추구(24%) 비율이 높았으며, 본가와 의 주요 교류수단은 휴대폰(98%)으로 2~3일에 한 번(30%) 꼴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본가에 방문하는 빈도는 2~3개월에 1회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교류빈도가 낮은 사람은 방문빈도도 낮아서 정보 교환, 지원 등이 제한된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9) 7건 중에서 같은 자치구에 속한 경우가 5건이었으며, 1건은 본가는 부산 중구, 현거주지는 부산 진구, 나머지 1건은 본가는 천안 서북구, 현거주지는 서울 동작구였음.

표 8 _ 네트워크거주 대상자 비교(미혼 직장여성 vs. 기숙사 거주 대학생)

구분	a. 미혼 직장여성 네트워크거주	b. 민자기숙사 거주 대학생 네트워크거주
대상유형	사회초년생, 결혼 적령기 독신자, 골드미스족	지방 출신의 민자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공간 분포	·중·장거리(도시 근무), 초장거리(해외근무)	·중·장거리(도시 내 대학 재학), 초장거리(해외 유학)
가족인식 범위	·부모+형제자매+조부모+조카+부모의 형제자매+조부모 형제자매 순 ·부모의 형제자매보다 자신의 형제자매의 자식인 조카를 더 가깝게 인식	·부모+형제자매+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조카+조부모 형제자매 순 ·조카가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의 형제자매를 조카보다 더 가까운 가족으로 인식
상호 부조 교류	·주거비 보조에 있어 본인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전체 50% 이상(전세 54.5%, 월세 77.8%)으로 가족친지 보조는 낮은 편→가족으로부터 원조욕구 낮음 ·본가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욕구 더 낮음	·등록금, 주거비는 거의 90% 이상 부모로부터 지원받음→가족으로부터 원조 욕구 높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로 지인 및 친구와 교류→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욕구 낮음
주거비 부담율	·월평균 주거비 약 36만 원 ·월평균 소득 약 210만 원 ·약 47%가 주거비 부담을 느낌 ·주거비 부담률: (36만 원/210만 원)×100=17.1%	·월평균 주거비(K대 민자기숙사 기준) 약 43만 원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라 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률은 매우 높음 ·약 88%가 주거 임대료에 부담을 느낌 ·주거비 부담률: (43만 원/156만 원)×100=27.6%
조사방법	·지역: 전국(온라인 패널) ·표본: 1천 명(여성 100%) ·실시기간: 2011년 7월	·지역: 서울 소재 K대 민자기숙사 대학생 ·표본: 411명(남 41.5%, 여 58.5%) ·실시기간: 2011년 1월

한편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필자의 선행연구¹⁰⁾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인식 범위로 대학생과 달리 미혼 직장 여성은 부모의 형제보다 자기 형제의 자녀(조카)를 더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연령대가 미혼 직장여성보다 어려 조카가 아직 없는 경우가 많아 인식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거 민자기숙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률이 27.6%인 데 비해 미혼 직장여성은 17.1%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거나 없는 대학생은 주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직장여성은 본인 조달이 평균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가

족이나 친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비율이 월세에 비해 크며, 월세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보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분거 대학생은 고민상담 등 정신적 교류에 있어서 주로 지인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었으며, 미혼 직장여성 또한 본가와와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교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근래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분거에 주목하여 이를 네트워크거주의 관점에서 교류 및 상호 부조 관계, 가족인식범위, 주거비 부담 현황 등을 분

10) 기숙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서울 소재 K대 민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미혼 학생을 선정하여 일부 문항을 제외한 동일 설문항목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최종 유효 응답자 수는 411명이었음.

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가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전국의 20~40대 미혼 직장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거주 실태조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거 미혼 직장여성의 거주지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직주근접의 편리성, 주택의 가격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직장여성의 주거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에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주택을 꾸준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이들 소형주택이 집단적으로 건설되어 지역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차문제를 일으키는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유도 및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예컨대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일본 도쿄도에서 제정한 지자체 단위의 소형주택(원룸맨션) 건설 조례와 같이 유지관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의 분거 미혼 직장여성의 월지출비용 구성내역을 조사한 결과, 집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평균 월주거비 부담률 RIR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 권고하는 RIR은 20% 이하인데, 평균 25% 이상이 되면 부담률이 크다고 본다. RIR 값이 큰 25% 이상의 고부담률 계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였으며, RIR이 40% 이상인 사람도 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IR 값이 큰 이들 계층은 주로 저학력의 20대 초중반으로, 적은 수입으로 고시원 등 소규모 기타 주택에 기거할 수밖에 없는 직장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들 계층을 위한 저리의 임차 대출, RIR 부담률 고려 주거비 차등 보조금,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주기 대응형

(청년-중장년-고령)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하여본다.

본 연구의 한계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거주의 공간적 특성, 즉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거주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과제로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미혼 직장남성, 본가에서 분가하여 살고 있는 젊은 부부, 독거노인 등 대상과 가족관계를 더욱 다양화하여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네트워크거주가 대응하며, 어떠한 정책적 과제 및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거주의 특성 요소를 더 추출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네트워크거주가 갖는 함의를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미혼 직장여성의 결혼 의사 여부, 주거서비스 수요 종류와 영향요인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다.

참고문헌 •••••

구자순. 1994.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 여성연구 제44권, pp65-86.
 김동진. 2010. “장수국가 ⑧ ‘무연사회’의 그림자”. 세계일보, 8월 12일자.
 김양희. 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기러기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23.
 김주현. 2010. “기러기 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4호, pp107-133.
 문숙재 · 윤소영. 2003. “주말부부: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pp213-220.
 박영미 · 최정민. 2011.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네트워크 거주 실태분석”. 국토연구 제71권, pp149-169.
 엄명용. 2002. “장기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5-43.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제64권, pp148-173.

- 정옥분, 2006.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차승은, 1999.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 및 분거 경험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2호, pp131-151.
- 최양숙, 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2호, pp37-65.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www.kostat.go.kr), [2011.9.2].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www.kostat.go.kr), [2011.9.2].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www.kostat.go.kr/) [2011.9.2].
- 川津のり, 2008. “인비저블· 패밀리見えざる家族”. 知的資産創造 3月, pp22-37.
- 山島哲夫·牛山美緒, 1996. “家族観と居住選択東京圏の公団階層にみる家族ネットワーク居住について”. 住宅 12月, pp34-40.

-
- 논문 접수일: 2012. 4. 5
 - 심사 시작일: 2012. 5. 3
 - 심사 완료일: 2012. 5. 21

A Study on the Network Residence of Single Career Women in Korea

Keywords: Network Residence, Separated Family, Single Career Women, Ratio of Housing Cost

This study focused a separate residence of single-person household which is recently growing rapidly, analyzed exchanges and mutual aids in respect of network residence, scope of family recognition, realities of housing expenditure burden, etc. and sought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a survey was performed for 1,000 single office women nationwide from 20's to 40's who are living apart from their main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major elements of choosing residential areas for single career women are accessibility for mass transportation, convenience for workplace and cheap housing expenditures and the most layout of residence housing was a type with more than 2 bedroom space. Second, as for separation cause, workplace(64%) followed by seeking independence life(24%) was most and they communicated with main families with mobile phones(98%) once in 2~3 days(30%) as for major communicating mean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monthly income was 2,100 thousand Won and composition of expenditure was housing expense including rental fee and administration charge(17%, 360 thousand Won), food expenses including eating out(19%, 400 thousand Won), transportation & telecommunication expenses(10%, 210 thousand Won), living expenses including shopping(21%, 120 thousand Won), money transfer to main families(6%, 120 thousand Won) and saving amount(27%, 570 thousand Won).

미혼 직장여성의 네트워크거주 실태분석

주제어: 네트워크거주, 분거가족, 미혼 직장여성, 가족인식, 주거비 부담률

네트워크거주란 교육이나 취업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공간상 따로 분가하여 거주하지만, 가족 유대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물리적·정신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근래 급증하는 1인가구의 분거에 주목하여 이를 네트워크거주의 관점에서 네트워크상의 교류 및 상호부조 관계, 가족인식범위, 주거비 부담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가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전국의 20~40대 미혼 직장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미혼 직장여성의 거주지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성과 직주근접의 편리성 및 저렴한 주택의 가격이며, 거주주택의 공간배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침실 공간이 있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둘째, 분거이유는 직장(64%)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 추구(24%)의 비율이 높았으며, 본가와외의 주요 교류수단은 휴대폰(98%)으로 2~3일에 한 번(30%)꼴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셋째,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210만 원이며, 지출비용의 구성내역은 집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17%, 36만 원),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19%, 40만 원), 교통·통신비(10%, 21만 원), 쇼핑 등 생활비(21%, 44만 원), 본가에 송금하는 금액(6%, 12만 원), 저축액(27%, 5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